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바로잡으신 예수님(10)

- 읽을 말씀 마 5:48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㉔ 우리가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이유!

㉑ 완전한 자가 돼야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온전한 자라야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계명은 대상에 따라 그 크기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것들도 모두 지키는 자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는 말씀대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습관적인 죄가 없는 수준으로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 지키는 것이 온전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진짜 그리고 영원히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큰 자가 되려면 “**주 앞에서 큰 자**”(눅 1:15)였던 세례요한처럼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충만을 받고 어릴 때부터 거룩했으며, 가장 빨리 완전에 도달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마 11:11)**”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것처럼,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닮은 온전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

고 헛된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온전에 도달하기 위해 살아갑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됩시다.

⑧ 완전한 자가 되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시 139:16-18). 다윗은 그것을 다 이루어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도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윗처럼 온전히 이루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중심’은 “레바브”로 “내부인간, 마음, 정신, 의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외모 즉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즉 속사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마음이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언행은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생각은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전체를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마음에서 생각이 올라오고, 말이 올라오고, 행동이 올라옵니다(마 12:34, 15:19-20).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심사를 다 보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바른 사람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유독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마음이 바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완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행 13:22).**”라는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지 마음이 아니라 언행심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 “맞는”은 상응과 일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즉 하나님을 철저히 닮는 것이 되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온전과 뜻이 통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다윗이 완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평생” 우리아의 일 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왕상 15:5)**”고 말씀

합니다. “모든 일” 그리고 “평생” 이라고 하셨으니, 밋세바로 인해 범죄하기 전에도 다윗은 완전했고 회개한 후로도 일반적으로 완전했다는 뜻입니다. 시편에도 다윗이 완전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시 18:20-26). 그러므로 다윗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 또는 정말로 큰일을 위해서는 완전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구약도, 신약도, 교회사도 완전한 자들의 행전 즉 완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완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완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얼마나 높여 주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완전에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출발은 아브라함이나 베드로 같아도 그들이 연단의 기간을 거쳐 훗날 완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완전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완전을 목표로 삼고 부단히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무조건 크게 쓰지 않습니다. 각자 부르심과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크게 쓰임 받고 말고와 상관없이 완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려면 완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범위가 아니라 수준에 있어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정확히 이루는 여정이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복종하셨고 “다 이루었다!” 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말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는데,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완전해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완전해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도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도 완전한 자였습니다(단 6:4). 그는 성경에 아무 잘못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에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단 12:13)**”라고 쓰여 있습니다. ‘평안히 쉬다가’ 라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생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순교한 자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도 않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음을 뜻합니다. 세례요한도 완전한 자였고 바울처럼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행 13:25).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빌 3:15). 이처럼 완전해 도달한 그는 인생 말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딤후 4:7)**”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각인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다 ... 나음을 얻으니라(행 5:15-16).**”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우리처럼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었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했고 결국 온전케 되어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습니다(벧후 1:13-15).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 완전을 추구합시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됩시다.

● 나눔과 적용

완전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계획을 모두 성취해 드리기 위해 나는 진정으로 완전을 원하는가 돌아보고, 부단히 온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봅시다.